



무주경찰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단속·홍보

무주경찰서는 최근 전북도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위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한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단속 및 교령자 대상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며 퀵서비스 종사자들과의 사고예방 간담회도 추진 예정이다. 남기재 서장은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고없는 무주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남원 운봉읍 복지기동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 운봉읍은 읍 복지기동대가 3월 발대식을 개최한 후, 처음으로 관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원 12명이 지난 20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 대상은 복지기동대가 발굴한 취약계층 2가구로, 곰팡이로 인해 도배 및 LED등 교체할 필요가 있는 1가구, 다져진 다문화가정 1가구의 주택 노후화로 나무 바닥 겹겹이 발생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었다. 이날 대원들은 집 청소 및 물품을 정리, 도배 및 집수리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원철 복지기동대장은 "취약계층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은주 운봉읍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인식조사 참여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주택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인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빠른 대피를 돕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서는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설치해야 한다. 조사 내용은 총 10개의 설문으로 구성, 응답자 중 매일 5명을 선정해 기쁨몰이를 증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요촌동 지사협, 저소득 보훈대상자 방문 격려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만중)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요촌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보훈 가족 47가구를 직접 방문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물품(여름 이불 세트)을 전달하며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촌동 지사협 맞춤형 테마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천하며 나눔 문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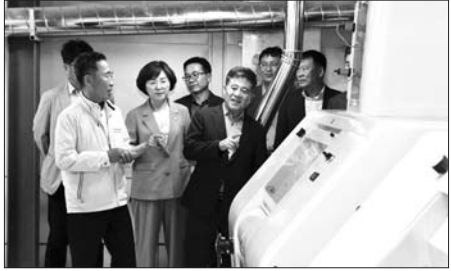
김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대회의실에서 최효영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6월 중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상반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점검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노래교실, 탁구교실 초·중급반, 풍물놀이)의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및 시 인구정책 등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홍보하는 의견을 모았다. 최효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금구면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금구면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두일근 금구면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봉사활동이 더욱 빛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우리밀 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우리밀 제분시설 준공식 개최... 위탁제분 비용 절감·재배농가 부가 소득 등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우리밀 제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최근 밀산업 제고 정책으로 김제시 밀 재배면적은 전국 밀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김제시는 제분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 위탁하여 제분해 왔다. 김제시는 제분시설을 준공함으로써 위탁제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분대행으로 우리밀 제분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밀 재배농가는 제분공장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확한 밀을 판매함으로써 정부수매 외에 부가적인 소득원이 될 것이다. 구축된 제분시설은 1등급 밀가루 50% 이상, 2등급 밀가루 20% 이상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간당 1.5톤(원곡 기준)의 제분 능력을 갖춰 연간 13,000톤(원곡 기준)의 제분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밀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밀 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국가 밀 정책사업과 더불어 김제시 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지역 갈등해소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군산시-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군산시의 한국행정법학회가 '새만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2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장,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학술대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새만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김용섭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의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갈등관리와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 검토' 기조발제로 문을 열었다. '국가적 이익 관점으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을 발제한 동아대 최우용 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므로, 국가 차원의 결단과 관련 법령 정비 필요하다"며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주민 친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시 각 지자체 갈등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선 교수는 "지자체 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사법절차 혹은 중재법절차로 대립적 구조 아래 해결하는 것보다는 협력을 통해 분쟁을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



시했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신동권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 동국대학교 최봉석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혜진 교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나현 교수가 참여하여, 새만금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행사를 지켜본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새만금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진안군 백운면-전주시 송천1동, 도·농 자매결연 협약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지난 21일 전주시 송천1동과 도·농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맺고, 도·농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보순 백운면장과 최두형 송천1동장, 허재우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 천혜의 산림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백운면과 문화의 중심지 전주시 송천1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상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자원과 정보 공유, 생산적인 교류 방안 모색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간 협력을 위한 백운농협(김연태 농협장)과 송천1동 통장협의회(윤지영 회장)도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해 지역 우수한 농산물 판로개척과 직거래 장터운영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체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정 고평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 유통과 홍보, 지역축제인 흥삼축제, 민면의 날 등에 상



호 방문하고, 송천1동은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오는 8월부터 백운지역 우수한 고랭지 농특산물 생산농가들이 참여하는 '백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보순 면장은 "이번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산림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교류사업을 추진,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주천면 주민자치위, 마을표지석 세척 나서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수행)는 지난 21일 위원 20여 명이 모여 관내 25개 마을 표지석 세척작업에 나섰다. 이번 세척작업은 '지역을 위해 스스로 나서는 활동을 하자'를 목표로 세우고, 관광철을 맞이한 주천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도로변에 서있는 마을 표지석은 세워진 이후 한 번도 닦지 않아 비산 먼지에 오염되거나 이끼가 끼는 등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농사용 고압분무기를 장착한 차량 5대 동원과 위원들이 솔 수세미로 깨끗이 닦아내는 등 위원들의 열의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특히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세워진 지 25년째 되는 표지석을 닦을 때 쨍든 때가 벗어지는 모습을 보여 위원들은 뿌듯해했다. 조수행 위원장은 "여름이면 향유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마을의 얼굴이라 할 표지석이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 보기가 싫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민방위 경진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부안군 모항해 나루가족호텔에서 도내 지원민방위대원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원민방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시군별 지원민방위대원을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안소방서에서 심판을 맡았으며, 대회 결과 남성팀에 순창군, 여성팀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윤종욱 도민안전실장은 "내 고장 지킴이로서 항상 전북과 민방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서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임실경찰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는 불법촬영범죄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법카메라 점검은 관내 학교·역·전통시장 등 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카메라 렌즈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 탐지 장비가 사용되었다. 불법카메라 촬영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 마령면 지사협,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진안군 마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금옥, 황인준)는 지난 2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관내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23가구에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마령면 지사협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마령 희망 천탑 쌓기' 이름으로 연합모금을 실시해 모여진 기부금으로 노약자 대상으로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와 생선 행복비구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진행된 화장실 안전손잡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 반응이 좋아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설치했다. 대상자는 마을 이장과 지사협위원,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을 받아 화장실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것을 본 술안마을 이모 어르신은 "무릎 수술로 화장실 이용 시 넘어질까 불안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인사
전북특별자치도
◇3급(실·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종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4급(과장급) 전보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수섭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토지정보과장 리형운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임선정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교육협력추진담당 이지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수산정책과장 서재희 ▲해양환경과장 이종찬 ▲자치경찰행정과장 남현지 ▲농업기술원 직물식품과장 서경원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안민실 ▲농업기술원 자원식품연구과장 김주희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과장 송은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최원희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권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정민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노재중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해열 ▲행정안전부 과건 김주영 ▲충청남도 파견 정광모 ▲중국어사무과 과건 임성익
◇3·4급(시군 부단체장) 내정 ▲익산 부시장 강영석 ▲남원 부시장 민선식 ▲김제 부시장 김희욱 ▲완주 부군수 문성철 ▲장수 부군수 강경덕 ▲순창 부군수 염기남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치지사 010-8645-9835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